



우유수급 해결방안 전문가에게 들어본다.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때



이종영
본회 충남도지회장

유기공 공장에서는 처리를 못한다고 아우성치며 목장에는 저녁착유시간 자기 집유차가 집유를 안해가서 착유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전화기만 붙잡고 있는 목장주인의 애타는 마음, 왜 우리 낙농업이 이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점에 현명한 우유의 수급조절 방안은 정말 없는가, 낙농업 현장에서 착유를 하며 분뇨처리, 조사료를 생산해서 젖소에게 먹이는 낙농가의 한사람으로서 우유의 수급조절 방안을 제시해본다.

2002년 낙농육우협회 주최 신년 교례회장 내서 필자는 “2002년 임오년 말띠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낙농육우산업이 준마처럼 하늘을 훨훨 날오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고 했지만, 지금의 낙농현실은 나에 30년 낙농사에서 최악에 이르고 있다.

젖소도태, 낙농자조금조성, 사랑의 우유보내기 운동... 그래도 현재 재고분유가 1만 8천톤이 넘고 있으며,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우유의 소비는 줄고, 목장에서 생산하는 우유는 증가되는데...

바로 닥치는 겨울방학...

유가공 공장에서는 처리를 못한다고 아우성치며 목장에는 저녁착유시간 자기 집유차가 집유를 안해가서 착유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전화기만 붙잡고 있는 목장주인의 애타는 마음, 왜 우리 낙농업이 이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점에 현명한 우유의 수급조절 방안은 정말 없는가, 낙농업 현장에서 착유를 하며 분뇨처리, 조사료를 생산해서 젖소에게 먹이는 낙농가의 한사람으로서 우유의 수급조절 방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현재 상황에서 해결책을 내놓을 곳은 바로 정부다.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낙농업 지원을 했다고 하며, 더 이상은 WTO규정상 지원이 매우 곤란하다고 하지말고, 재고분유 전량을 처리 해 주어야만 된다고 본다.

마늘재배 농가에 1조8천억을 지원하듯, 낙농가도 정부에서 개방화 시대에 살길은 시설현대화, 규모화, 자동화 뿐이라고 정부지원 융자금으로 모두 부채에 눌려있는데 우유생산량을 당장 줄이라는 것은 정부가 지원해준 융자금은 회수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낙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구상에 어떠한 국가든 그때 그때 낙농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해결해 주고 있지 않은가.



둘째, 원유내 수급조절 기관이
라 칭하는 낙농진흥회는 다시 태
어나야 한다.

진흥회 가입만 열을 올리더니
결국 이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수급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먼저 낙농가
에게 제시하고 수급과정에 잘못
을 인정, 사과하며 책임자는 당
연히 문책되어야 한다. 낙농가에
게 생산만 줄이라고 하지말고 우
유의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해주
기 바란다.

셋째, 국내에 유가공업체에서는
는 자사에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
서 국내의 낙농산업은 외면한
채, 모조분유 수입에만 열을 올
리지 말고 낙농가와 함께 공존해
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같이
어려운때에는 모조분유 수입을
자제해주고 우유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공동으로 매체광고에 임
해주어야 되겠다.

넷째, 우유의 소비확대 방안으

로 용량을 확대해서 소비를 늘리
고 중·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
제도를 마련해서 초등학교 수준
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게
도 더 확대 공급을 해야되며, 전
국의 낙농가는 자조금조성에
100% 참석해서 TV, 라디오에 대
대적인 우유소비 홍보가 전개되
어야 한다.

다섯째, 전국에 낙농가는 책임
을 공감하며 생산을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다한 수입 조
사료 이용을 자급조사료 생산으
로 조금씩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요즘 우유의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종축개량, 사
양기술 발달, 사육환경 개선이라
고 하지만, 그 부분 보다는 수입
조사료가 우유증산에 많은 부분
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당장 부산항에 수입조사료
컨테이너가 안들어 오면, 원유생
산량은 줄고, 부족현상으로 돌아
설것이며, 목장에 젖소는 조사료
가 없어서 아우성을 칠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조사료 생산에
우리는 힘을 써야만 된다고 보
며, 비싼 수입조사료 이용을 점
차 줄여서 우유생산량도 감산되
며 안정적인 수급조절이 이루어
질 것이다.

상기 다섯가지만 시행된다면
우리 낙농업은 지금의 상황을 탈
출해서 성장, 발전되리라고 필자
는 믿는다. ☺

(필자연락처 : 041-641-9330)